‘황후의 품격’ 후반부, 예측불허 ‘김순옥 전개’ 어떨까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스토리 전개 계속

김순옥 작가는 멈추지 않는다. ‘황후의 품격’이 후반부에서 더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은 최근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장나라, 최진혁, 신성록 등 배우들의 열연이 낸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수목극 1위를 사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예측할 수 없는 휘몰아치는 전개가 있다.

지난 방송에서는 황후 오써니(장나라)가 소현 황후(신고은) 죽음의 진실을 수면 위로 부각하며 황제 이혁(신성록)과 태후 강 씨(신은경)의 뒤통수를 치는 역습을 날렸다. 오써니의 권유로 소현 황후가 죽어가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소설 ‘마지막 스펜서 부인’을 읽던 이혁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동시에 소현 황후의 부친 변백호(김명수)가 황실에 들어서며 “그렇게 내 딸이 죽은 거냐”고 물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 제작진은 22일 후반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공개했다.

◆ 오써니 · 천우빈, 황태제 이윤과 복수전 속도 낼까

오써니는 ‘마지막 스펜서 부인’ 독자간담회를 만들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던 태후의 계략에서 강력한 역공을 가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소현 황후 일기장을 분석, 태후의 뒤를 캐고 있던 오써니는 천우빈(최진혁)과 함께 자신에게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혁을 이용해 소현 황후의 죽음은 물론, 태황태후(박원숙)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는 데 사활을 내걸었다. 또한 황태제 이윤(오승윤)은 전 경호대장인 변백호에게 소현 황후의 경호원이었던 강주승(유건)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건네며 ‘마지막 스펜서 부인’을 집필한 진짜 빈센트 리로서 소현 황후의 죽음을 공개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써니와 천우빈이 이윤의 도움을 받아 ‘소현 황후 죽음’에 관한 진실을 오롯이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 소현 황후를 죽인 범인은 황제가 맞나?

소설 ‘마지막 스펜서 부인’에 쓰인 그대로 과거 이혁은 소현 황후와 강주승의 관계를 의심, 소현 황후를 몰아붙였고 뒷걸음질 치던 소현 황후가 연못에 빠지고 난 후에도 이를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후 태후가 나타나 죽은 소현 황후를 심장마비로 처리하라고 명령하면서, 소현 황후의 죽음이 비밀리에 묻히게 됐던 것. 하지만 이를 목격한 황태제 이윤이 집필한 마지막 스펜서 부인’에 의해 소현 황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이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혁이 읽어내려 간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모르고 있었다. 스펜서 가의 충직한 집사가 시체를 빼돌렸다는 것을”이라는 구절에 따르면, 화장한 후 유골함에 담겨 있는 소현 황후의 진짜 시신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터. 점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진짜 진실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혁이 강주승을 살려놓은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 이혁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강주승을 찾아가 소현 황후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너뿐이라며 기억을 해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더욱이 강주승은 태후가 왜 그토록 청금도에 집착하는지 내막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이로 인해 이혁이 태후조차 알지 못하게 강주승을 살려놓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주승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민유라(이엘리야)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초반 민유라가 낳았던 백도희(황영희)와 천우빈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동생처럼 키운 나동식(오한결)이 민유라와 강주승의 아이임이 밝혀진 상태. 과연 강주승이 기억을 되찾고 숨겨졌던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 민유라와 아들 나동식을 만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작진은 “‘소현 황후의 죽음’과 ‘태황태후의 죽음’에는 황실 비리의 핵심인 이혁과 태후가 관련된 만큼 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써니와 천우빈의 활약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앞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스토리 전개가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븐틴 ‘홈’, 해외에서도 통했다…아이튠즈 19개국 1위

그룹 세븐틴이 각종 국내외 차트 1위를 순항하는 높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세븐틴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6집 앨범 ‘YOU MADE MY DAWN(유 메이드 마이 던)’을 발매하며 국내 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외 각종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인기를 나타냈다.

세븐틴은 발매와 동시에 타이틀곡 ‘Home’이 벅스, 네이버 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진입한 데 이어 각종 국내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진입, 수록곡 전곡을 차트 인 시키는 쾌거를 이뤘으며 미국 아이튠즈 톱 뮤직 앨범에서는 10위권 내 이름을 올린 유일한 K-POP 앨범으로 컴백 첫 날부터 본격적인 차트 점령에 나섰다.

이처럼 세븐틴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듯 각종 해외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이번 미니 6집 ‘YOU MADE MY DAWN(유 메이드 마이 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글로벌 대세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미니 6집 ‘YOU MADE MY DAWN(유 메이드 마이 던)’은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미국, 브라질,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 무려 19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대만, 포르투갈, 칠레 등 총 22개국에서 TOP 10에 진입, 해외 각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는 아이튠즈 톱 뮤직 차트 1위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현지 유명 아티스트를 제치고 TOP10 내 유일한 K-POP 앨범으로 정상에 등극, 세븐틴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어 타이틀곡 ‘Home’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대만 등 총 16개국에서 TOP 10에 진입해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통하는 이들의 음악성과 함께 “역시 믿고 듣는 세븐틴”임을 입증했다.

세븐틴이 약 6개월 만에 발표하는 미니 6집 ‘YOU MADE MY DAWN(유 메이드 마이 던)’은 또 한 번 색다른 변화를 머금은 세븐틴의 한층 성숙해진 모습과 폭 넓어진 음악적 역량을 담아낸 2019년 역대급 앨범이며 URBAN FUTURE R&B 장르인 타이틀곡 ‘Home’은 좋아하는 상대에 대한 소중함을 애틋한 감성을 따뜻한 분위기로 표현해 국내외 리스너들을 사로 잡고 있다.

세븐틴은 오는 24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타이틀곡 ‘Home’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며 화려한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팡팡 터진 코미디영화, 소소하지만 확실한 웃음

코미디 영화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걸까.

최근 개봉한 코미디 영화 몇 편의 흥행이 심상치 않다. 이 기세는 지난해 10월 31일 개봉해 완벽한 흥행을 이뤄낸 영화 ‘완벽한 타인’(감독 이재규)부터 시작됐다. 일명 ‘방구석 스릴러’라 불렸던 ‘완벽한 타인’은 친구 집들이에서 시작한 게임으로 촉발된 웃지 못할 해프닝을 그렸다. 손익분기점 180만 명에 누적 관객 약 530만 명을 모으면서 가성비 흥행 끝판왕에 등극했다.

이 배턴은 영화 ‘내안의 그놈’이 이어받았다. 지난 1월 9일 개봉한 영화 ‘내안의 그놈’(감독 강효진)은 진영과 박성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혼이 바뀐다는 ‘바디 체인지’를 소재로 사용했다. 다소 촌스러운 이야기 전개에도 불구하고 빵빵 터지는 대사와 배우들의 하드캐리로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 150만 명을 넘으면서 올해 첫 흑자 영화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코미디 영화는 그다지 환영 받지 못했다. ‘투캅스’(1993) ‘조폭마누라’(2001) ‘신라의 달밤’(2001) 같은 영화들이 관객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미디 영화는 유치하다는 인식이 굳어져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 그 자리를 ‘범죄와의 전쟁’(2012)이나 ‘신세계’(2013)와 같은 남성 위주 조폭 영화들이 채웠다.

코미디 영화들이 고만고만한 성적을 내며 고전할 때, 불현듯 등장한 ‘럭키’(2016)가 약 700만 명이라는 믿지 못할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이는 tvN ‘삼시세끼’ 시리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유해진 개인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크게 작용한 것, ‘럭키’ 이후로도 코미디 영화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유행하는 패션이 돌고 돌듯 영화를 보는 관객의 취향도 바뀌는 걸까. 코미디 영화 ‘완벽한 타인’과 ‘내안의 그놈’이 모두 손익분기점을 가볍게 넘긴 가운데, 오는 1월 23일 개봉하는 신작 코미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 역시 흥행을 자신하고 나섰다.

전작 ‘스물’(2015)과 ‘바람바람바람’(2018)으로 차진 대사, 일명 ‘말맛’을 잘 살린다고 정평이 난 이병헌 감독의 신작인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 직전인 마약반 형사 5인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이 잠복근무를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이 나면서 생기는 일을 다루고 있다.

소재도 독특한데다가 이미 입증된 이병헌 감독의 연출력, 거기에 빵빵한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져 예비 관객의 기대가 크다. 개봉 전 언론, 일반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후 평도 나쁘지 않은 편. 손익분기점을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이후에는 정재영, 김남길, 엄지원이 주연한 독특한 좀비 코미디 ‘기묘한 가족’(감독 이민재)이 개봉을 예고하고 있다. 혹자는 코미디 영화가 각광 받는 이유가 사는 게 워낙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확실한 웃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야 어찌 됐든, 피비린내만 진동했던 스크린에 웃음이 번지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음력 12월 18일)

▶쥐띠 ㄱ, ㄹ, ㅈ 성씨는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다고만 하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라. 모든 사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덕을 쌓아라. 2, 8, 11월생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원망하지 마라. 차차 정리되어 힘차게 날개짓 할 수 있는 날이 오겠다.

▶소띠 무슨 일을 하던지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활달한 표정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먼저 인상으로 제압할 것이다. 2, 5, 10월생은 금전 문제로 구설이 따르나 소신껏 처신할 때 도움 올 듯. ㅁ, ㅂ, ㅎ 성씨는 현재 위치에서 가정을 지켜라.

▶호랑이띠 ㅂ, ㅅ, ㅇ 성씨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맘도 귀담아 들어주고 아랫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나무는 큰 나무에 덕을 볼 수 없어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볼 수 있음을 알라. 7, 8, 9월생은 흰색이 길조.

▶토끼띠 지나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타인에게도 베풀어라. 하나를 얻으면 귀인이 될 것임을 알라. ㄴ, ㅈ, ㅍ 성씨는 자녀의 배필 문제로 가족들에 의견이 대립되니 혼돈 오겠다. 1, 9, 11월생은 자신의 건강을 자부하지 말고 마음먹고 체크해 봄이 좋을 듯.

▶용띠 주인 노릇을 하려면 스스로 종업원인 듯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재주가 많은 유능한 종업원들임을 알라. 어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1, 3, 7월생은 금전거래는 금하라.

▶뱀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꼭 필요한 인재라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라. 3, 5, 6, 10월생은 먼저 장, 단점을 파악해서 친절하게 대해라. 상대는 당신의 심복으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말띠 2, 5, 7월생은 감언이설에 빠져서 곤경에 처할 듯.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일에 열중하면 이중 삼중에 득이 온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해를 면할 수 없을 듯. 남성은 서, 북쪽 사람 유혹을 조심하라. 행복한 가정에 눈물 흘릴 듯.

▶양띠 ㅂ, ㅈ, ㅊ 성씨는 남들이 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으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용기로 밀고 나가라. 승부욕도 좋지만 알맹이 없는 자만은 금물이다.

▶원숭이띠 ㄴ, ㅇ, ㅈ 성씨는 자신을 비관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뜻한 바 이뤄지겠다. 남의 돈을 쓰면 잊지 말고 갚을 줄 알아야 할 때. 5, 7, 9월생은 차차 호전될 운이나 매매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듯.

▶닭띠 3, 5, 10, 12월생은 도박을 삼가고 기적에 대한 부를 기대하지 마라. 허황된 생각은 발전이 없다. 남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는 일 변경하지 마라. 명예, 금전, 애정까지 빼앗길 수 있으니 욕심은 금물임을 알아라. ㅂ, ㅅ, ㅇ 성씨는 외출은 삼갈 것.

▶개띠 솔직하지 못한 생각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좋은 척하고 의심하는 성격을 버려라. 2, 8, 11월생은 금전으로 인해 사랑을 미워해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정신적, 육체적 모든 면이 지친 상태임을 알라. 건강에 신경 쓸 것.

▶돼지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있는 것. 잡념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충실 하라. 마음이 흔들리면 매사 어수선하게 된다. 3, 4, 8월생은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ㅂ, ㅅ, ㅇ 성씨는 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일 변경하지 말것. 남, 서쪽이 길한 방향.